



이 학 영 | 우리협회 이사
한국자생어종연구협회 회장
(koreafish@hotmail.com)

하상변화에 민감한 밀어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하상변화에 민감한 밀어

학명 : *Rhinogobius brunneus* TEMMINCK & SCHLEGEL
 지역 방언 : 효자고기, 꾸짜구, 빼꾸리, 을무니, 비단뚜구리 등
 분류 : 농어목 망둑어과
 자생 수역 : 전국의 연안을 낀 하천
 주 서식장소 : 물이 맑은 하천의 중류
 번식기 : 5~7월
 크기 : 10센티 내외

밀어는 작고 귀여운 민물에 사는 망둑어 종류의 물고기다. 몸은 원통형으로 길며 꼬리지느러미쪽으로는 납작하다. 제1, 제2 두개의 등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세력권에 다른 물고기가 접근하면 이 지느러미들을 곧추 세우고 위협하며 밖으로 몰아낸다. 주둥이 끝에서 양 눈까지 V자형의 빨간 띠가 있어 비슷하게 생긴 갈문망둑, 민물검정망둑 등 다른 망둑어과의 물고기와 쉽게 구분이 된다.

모래와 자갈이 많이 깔린 하천의 중하류 및 호소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의 하천, 한강, 금강, 섬진강, 형산강 등 전국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어 눈썰미 좋은 사람들에게는 그런대로 잘 알려져 있는 어종이다. 식성은 잡식성으로 돌에 붙은 부착이끼도 섭취하나 수서곤충, 물고기 치어, 실지렁이 등 육식성을 더 좋아한다. 배지느러미가 둥그런 모양

의 빨판으로 되어 있어 강바닥의 바위나 자갈에 달라붙어 있을 수 있다.

번식기의 수컷은 큰 돌 밑의 모래를 입으로 열심히 물어 내어 산란터를 조성하여 암컷을 끌어들인다. 멋진 신부 밀어를 맞으려면 잘 차려진 신방 아파트를 만들어야 하니 수컷 밀어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윽고 암컷이 배를 뒤집어 돌천정에 알을 낳아 붙이면 수컷은 곧 방정을 하여 수정을 시킨다. 산란을 마친 암컷은 미련 없이 산란장을 떠나고 수컷 밀어는 부화 때까지 가슴지느러미를 저어 알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깨어날 때까지 이를 지키는 부성애가 뛰어난 물고기다.

체색과 몸에 나타나는 무늬는 서식지, 환경, 계절 및 개체마다 변이가 몹시 다양하다. 통상 담갈색 바탕에 5~8개의 녹색 반점이 드문드문 박혀 있으나 일정하지는 않다. 잘 관찰해 보면 십수 가지가 넘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 색깔의 밀어를 전국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번식기에 매우 화려한 체색을 띤다. 온 몸이 울긋불긋 금속성 광채로 빛나기도 하고 주위 환경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뽐내기도 한다. 그래서 밀어를 수조에서 기르다 보면 형형색색의 다른 옷을 입은 밀어 모델들이 펼쳐는 패션쇼를 관람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즉 관상어로서 우수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밀어는 일본

에도 서식하는데 체색의 다양한 변이로 이를 여러 가지 아종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

옛날 경기도 양평 일대에서는 밀어를 쉽게 잡는 재미난 천렵방법이 있었다. 한량들이 넓은 포목을 가져와 수심이 얇은 강 여울바다에 펼쳐놓는다. 한참을 놔두어 여기에 밀어떼가 다닥다닥 달라붙으면 여럿이서 천 귀통이를 재빨리 들어 올려 잡아 술안주로 했다고 한다.

충남 논산의 일부 지역에는 밀어를 효자고기로 부른다. 이 마을에 살았던 조선 중종 때의 학자인 강응정 선비가 병상의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시장에서 고깃국을 한 그릇 사오다가 그만 한겨울 개천에 미끄러져 쏙고 말았다. 가난했던 강선비

가 망연자실할 때 뜨거운 국물로 인해 뚫린 얼음 밑 얇은 물에 밀어가 떼를 지어 월동을 하고 있었다. 그가 이 물고기를 잡아 국을 끓여드려 어머니께 효도했다해서 '효자고기'라는 이름이 생겨났는데 논산천 상류에 가면 이 전설이 안내판에 소개되어 있다.

밀어는 저서성으로 주로 하상의 자갈과 바위에 붙여 살므로 급작스런 하상준설작업은 이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또한 도시하천 생태복원시 이들과 같은 저서성 어류를 고려한 서식지 개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설계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이다. ●



〈그림 1〉 밀어 1. 등지러미를 한껏 세우고 있는 이 녀석은 수컷으로 배에 빨판지느러미가 있어 돌에 바짝 붙어 있을 수 있다. 큰 물살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독심을 가지고 매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림 2〉 밀어 2. 밀어는 수컷이 알터(산란터)를 만들어 암컷을 모셔와 번식을 하는 진보된 방법으로 후손을 남기는 물고기. 사진 뒤의 수컷이 자신의 아파트를 깨끗하게 하는 암컷의 경쟁자를 경계하고 있다.



〈그림 3〉 밀어 3. 밀어의 주둥이와 콧잔등을 지나 양눈에 이르기까지 빨간 줄무늬가 연결되어 두 줄로 나있다. 이는 마치 V 또는 X처럼 보여 승리를 연상시키고 있다.



〈그림 4〉 서식처. 밀어는 거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사진은 밀어가 사는 물이 맑은 금강의 중류 수역.